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발행인의 데스크



실탄 사격장에서 산화한 캐나다군 상병 최흥만(29세)

Korean Canadian Cpl James Choi

며칠 전 캐나다 전역의 TV에서 한국계 캐나다인 최흥만 상병이 에드먼턴 북동쪽에 위치한 웨인라이트 사격장에서 실탄 사격 연습 도중에 총탄을 맞고 곧바로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에드먼턴으로 에어 엠블런스에 실려 후송되었으나 곧 숨을 거두었다는 비보는 많은 국민들 특히 한국계 캐나다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두천에서 차를 타고 산 고개를 넘어 가면 주한 미7사단 캠프 호비라는 부대를 정문을 통해 한참 영내를 달려가면 사격 훈련장이 눈에 띈다. 사격장 앞 마당에 도착하면 잡담은 고사하고 숨도 못 쉬는 분위기이다.

옆 전우와 말도 한마디 못하게 한다. 그만큼 실탄 사격장에서 군기가 엄격하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하였던 것이라.

동두천 사격장에는 아주 먼 거리 주둔 미군 병력들이 단체로 군용 트럭을 타고 와서 2박3일 동안 실탄 사격을 하고 간다. 사격 연습이 진행되는 순서는 한국군과 별도로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러나 옆 전우와 말도 못하고 소리내어 웃지도 못한다. 29세의 꽃다운 나이에 사격 훈련장에서 산화한 최흥만 상병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캐나다 국방부는 최상병



이 사격장에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뚜렷이 밝히지 않고 있다. 29세의 나이가 너무 아깝지 않은가?

한국 논산 훈련소 사격장보다 상상을 초월한 좋은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주한 미군들의 사격장 군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29세의 꽃다운 나이에 사격장에서 숨진 최상병 가족들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수년전 캐나다 연방 총독이 흑인 숙녀였던 시절, 일본계 캐나다인 상등병이 외국으로 파병되어 적의 총탄을 맞고 산화했을 때 캐나다 전체가 그 일본계 캐나다인 병사의 죽음을 애도하던 날이 바로 엇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한국계 캐나다인 군인이 사격장에서 안전사고로 희생된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 일본계 상병의 어머니와 동생이 연방 총독의 초대를 받아 만나는 장면이 전국 TV 뉴스에 떠오를 때 많은 백인계 캐네디

안들이 숙연한 자세를 흐뜨리지 못했었다.

캐나다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의 나라이지만 우리 한국 동포들도 소위 백인계 캐나다인들 처럼 캐나다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주인의식을 배양시키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캐나다군인 최흥만 상병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유족들에게 감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엘보강 공공미술 프로젝트 찬사와 비판 교차



캘거리 남쪽 도심에 가로 지르는 엘보강의 새로운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이 찬사와 비난 두 가지를 동시에 불러들이고 있다.

툼슨 캘거리시 예술 담당관은 "코로나 사태와 기존 경기 침체로 지역 예술인들의 생계가 짓눌리고 있는 시점에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엘보강 인근에서 설치되는 52만5천 달러 규모의 예

술 작품들은 쇠락하고 있는 인근 지역 공간과 침체된 지역 문화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떠도는 섬'으로 알려진 지역 및 캐나다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들은 재정 긴축과 지방세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금 낭비라고 주장하는 캘거리 시민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있다.

'캘거리시(City of Calgary)' 트윗에 대한 한 트위터 반응은 "물 속에 많은 돈을 던진 뒤 재산세를 인상하고 새로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이는 그것을 "그냥 많은 돈을 태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작품 시리즈는 "도심 휴식 공간에 더 멋진

고 기능적인 예술을 제공함으로써 4번가와 엘보 드라이브 인근 엘보 아일랜드 공원에 시민들이 더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니퍼 톰슨 캘거리시 예술 담당관은 강조했다.

캘거리시 당국이 초기 공공기금이 투입된 조각상들이 캘거리 기반의 예술가들이나 심지어 캐나다 예술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시 당국은 일부 작업들은 지난 2013년 홍수로 인해 훼손된 엘보강과 어류 서식지 복구작업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시는 성명서를 내고 "예술가들이 생태학자, 하천 엔지니어, 지역 원로, Moh'kinsstis Public Art Guiding Circle 회원 등 다수의 주제 전문가들과 상의했다"고 부연설명했

다. 예술가인 제레미 파브카와 션 프로시크는 '늦은 점심'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버려진 것같은 비취없는 손수레의 사 람같은 모습은 쓰레기 같은 물건이라도 귀하게 재활용할 수 있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멋지고 자연친화적인 예술품도 될 수 있다는 모티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예술가 조엘 스테이플스와 수잔 클라라한은 그들의 Sun Chairs piece가 휴가, 휴식, 휴식 그리고 확대된 비전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캘거리 웹사이트에 "의자의 뒷부분이 하늘을 향해 각을 세워서, 우리의 시야와 관점을 저 높은 곳을 향하게 하는 것으로 상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떠도는 섬'은 현재 설치되고 있고 12월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 도시의 공공 미술 프로그램은 몇몇 예술 조형물이 많은 돈을 들인만큼의 가치가 있었느냐는 캘거리 시민들의 의구심이 나오면서 재검토되고 있다. 특히 이 도시의 북동쪽에 있는 'The blue ring of Travelling Light (여행하는 빛의 청반지)'와 캐나다 올림픽 공원 근처의 타워 설치물에 예술을 대하기 보다는 경관을 해치고 있다면 눈살을 찌푸리는 시민들이 있다.

툼슨은 "납세자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외부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제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동결되기 전에 시가 약속했던 몇 가지 다른 예술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이전에 약속했던 것, 명예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